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8호

2021년 12월

전문가 기고

ISSB 공시 기준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

주요 이슈

ISSB 설립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ESG 동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결과 및 특징

주요 통계



대한상공회의소

ISSB 공시 기준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의형

최근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발적인 ESG 공시를 수행 중이다. 다만, 기업 별로, 보고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니셔티브)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듯 단일의 국제 표준의 부재로 인한 복수의 기준 활용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공시부담을, 정보이용자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다. 비교가 높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의 지속적 요구에 대응하여, IFRS재단은 ISSB를 설립하고 국제 표준이 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할 것을 공식 발표한다. 재단은 기후관련 사안부터 우선하여, 주요 기준제정기구들과의 통합 및 협력 하에, 투자자 중심의, 국제 기준선(global baseline)이 되는 단일의 기준을 제정한다는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했다. 제정될 새로운 공시 기준은 국제증권감독기구, 금융안정위원회 등 핵심 국제기구와 G7 및 G20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동 공시기준이 적용, 수정, 의무화 등에 대하여 각국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선 접근법을 택하였고, 결국은 각국은 국가별 법률, 정책, 규제 등과 상호보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ISSB에 의해 국제 기준이 제정되면 국내에도 도입되고 적용될 것이다. 다만,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핵심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IOSCO가 ISSB 공

시기준의 도입 및 이행을 회원국에 강제할 가능성, 주요 선진국(EU, 미국, 영국 외)들이 국제 기준을 공시체계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주목하고 검토해야 한다.

둘째, 국내 규정 및 제도와와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유용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수요가 존재하므로, NGO나 지역사회, 정부 법령 및 규제 등과 어떻게 융화되어 국제 기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셋째, ISSB 공시기준을 통한 정보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이며, IFRS 회계기준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회계정보와의 연계성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넷째, ISSB의 기준 제정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국제 기준에 국내 경영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ISSB 기준 공개초안 발표 등의 기준 제정 중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들의 수용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공시 기준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에서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비용-효과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 산업, 영향 등을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무적용 대상 기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회계기준원은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지원센터와 KSSB 준비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준원은 ISSB 공시기준의 효과적인 국내 도입방안 모색, 기준제정과정에서의 기여 방안 마련, 그리고 현행 공시체계 내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보고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IFRS재단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금융위의 지원 하에 ISSB 초기운영자금 관련 재정지원 확약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시체계 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SASB 기준을 국문 번역하였으며,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을 위해 지속가능성보고 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는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시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광폭의 속도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필두로 관련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회계기준원도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시장에서 잘 공개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제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 및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from 40+ jurisdictions* from 6 continents joined the UK in publicly welcoming the announc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SSB and its work programme to develop a set of internationally consistent, high-quality, and reliable baseline standard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on enterprise value creation.

ISSB 설립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김천구 연구위원

기업이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재단은 COP26에서 새로운 위원회 설립을 공식 발표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① ISSB 설립

전세계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ESG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적절하게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란 기존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달리 기후, 환경 등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는 기준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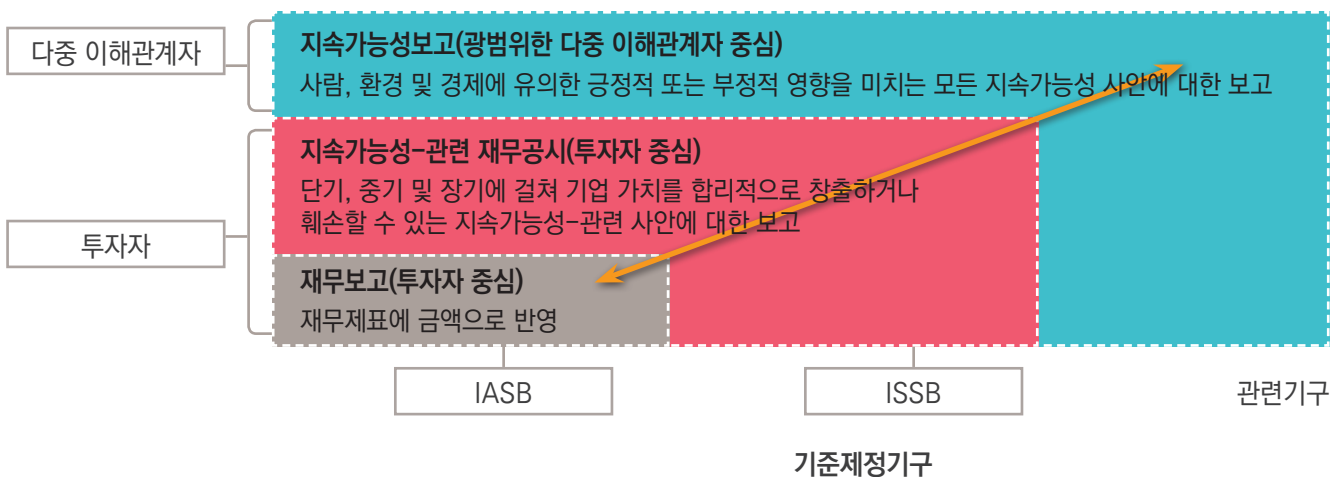
투자자들은 기업이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형태로 제공받기를 원한다. IFRS재단은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COP26 회의('21.11)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단일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IFRS재단은 기술준비실무단(TRWG)을 구성하고, 재무 및 기후관련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주요 목적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시의 범위는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중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합리적으로 창출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포괄해야 한다. 재무제표에 이미 기재된 정보 뿐만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ISSB는 2022년 6월까지 초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우선 환경·기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맞춰 측정 가능한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ESG 공시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도 관련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요정보이용자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전략



②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프로토타입

기술준비실무단이 공개한 프로토타입은 ① 지배구조, ② 전략, ③ 위험관리, ④ 지표와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진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과 기회요인을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상의 절차와 과정, 제어기능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을 전사적 차원에서의 전략 수립과 실행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기업의 영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요인이 어느 시점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기대를 서술해야 한다.

‘위험관리’는 기업이 현재 직면하거나 향후 직면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위험이 인지되는 과정과 평가 요소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의 영향과 발생 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표를 어떤 척도로 측정하고 검토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보로는 산업간 비교가 가능한 척도와 특정 산업 고유의 척도 그리고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척도를 제시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해서 기업, 회계법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IFRS재단의 움직임을 비롯한 글로벌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에 관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시 기준의 목적을 이해하고, 글로벌 표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프로토타입

구분	주요 공개내용
지배구조	·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내용 ·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평가·관리하기 위한 경영진의 역할
전략	· 단기/중기/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 영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위험관리	· 식별, 평가 및 관리 절차 · 식별, 평가 및 관리의 리스크 관리체계 통합 방법
지표와 목표	·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평가·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표치 및 성과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민경희 연구위원

파리협정 시행 원년을 맞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이행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① 지속가능 금융 개요

지속가능 금융은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와 같은 요소들을 비즈니스 관련 의사결정과 경제발전, 투자전략 등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¹⁾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ESG 투자'와 혼용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재무적 투자와 같이 금융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ESG와 관련한 중장기적 위험과 기회 요인을 함께 고려하며 ESG 가치만을 추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투자자의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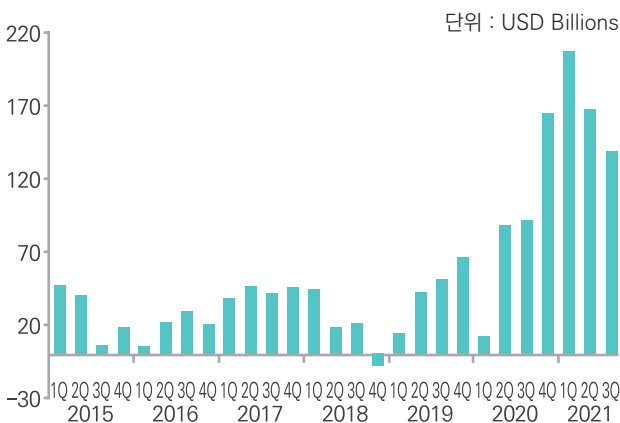
실제로 기업의 ESG 추구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이에 반하는 행위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로 인해 차량 판매대수가 약 24.7% 급감하고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② 글로벌 ESG 투자 현황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약 40.5조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ESG 펀드의 경우 운용자산(AUM) 규모가 금년 1분기에 2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3분기에 3.9조 달러로 급증했다.

국제 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 Initiative)에 따르면, 글로벌 ESG 채권의 누적 발행규모가 2021년 3분기까지 약 2.3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1~3분기 중 7,790억 달러가 발행되었다. 이는 기존에 ESG 채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뿐 아니라 지속가능연계채권(SLB)과 트랜지션 채권까지도 포함한 수치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녹색채권의 누적 발행액은 전체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2조 달러로, 금년 상반기에만 약 5,000억 달러가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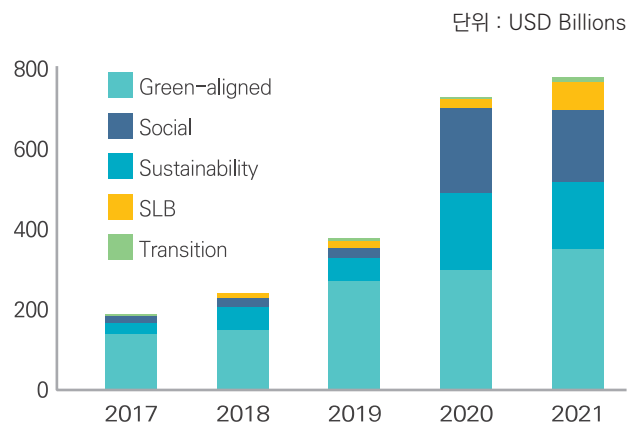
글로벌 ESG펀드 자금유입



※ 자료 : Morningstar; 키움증권 재인용

1) IMF(2019)

글로벌 ESG채권 발행 규모



※ 자료 : Climate Bond Initiative

지속가능연계채권은 기업의 ESG 성과와 자본조달 비용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ESG 채권과 달리 자금의 용도를 특정 프로젝트로 제한하지 않고 기업이 사전에 설정하는 ESG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등 채권 발행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2019년에 104억 달러 규모로 최초 발행된 이후 2021년 상반기에 425억 달러로 증가했다.²⁾

트랜지션 채권은 탄소집약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친환경 자산에 대한 투자는 급증했지만 다배출 산업의 전환에 대한 투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EU의 녹색 분류체계에서도 친환경 전환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³⁾

③ 국내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시사점

친환경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경영전략 추진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 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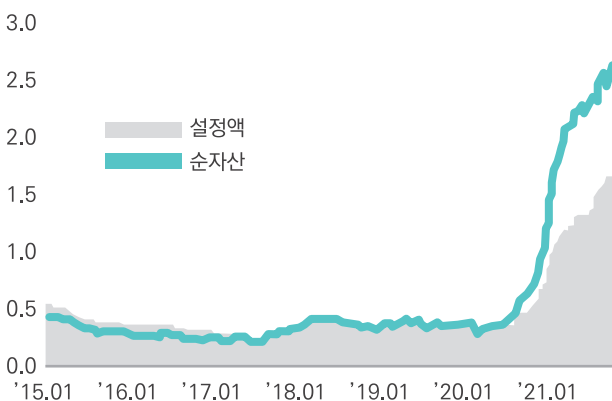
2019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ESG 투자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ESG 펀드 설정액이 최근 1년간 크게 증가하면서 약 1.6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11.12일 기준).

ESG 채권 발행액도 '18년 1.3조 원에서 금년 82.7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11.29일 기준). 이는 금년 초 ESG 채권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가능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와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ESG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ESG를 연계하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및 지속가능연계대출을 활용해 그린워싱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ESG펀드 설정액 및 순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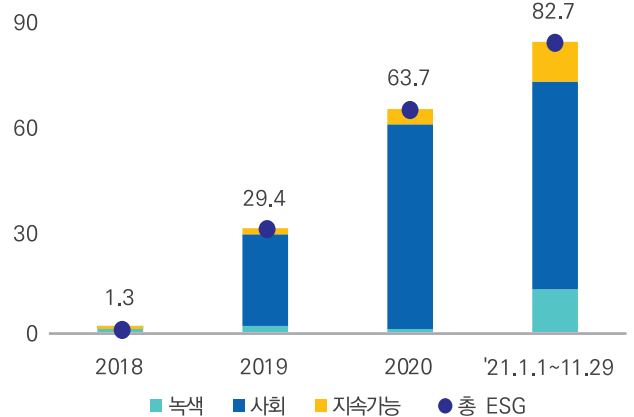
단위 : 조 원



※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재인용

국내 ESG 채권 발행 추이

단위 : 조 원



※ 자료 : 인포맥스

2) 자본시장연구원(2021)
3) Climate Bond Initiativ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



이진 연구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개정된 ESG 모범규준을 공개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ESG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고, 2022년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SG 모범규준은 환경경영·사회책임경영·기업지배구조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규범의 표준이다. 동 규준은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모범규준을 참고해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

이번 ESG 모범규준 개정은 책임투자 활성화와 국내외 제도·규범 개선을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ESG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 및 사회 모범규준은 2010년 제정 이후 처음 개정된 것이며,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은 1999년에 제정 이후 세번째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비재무정보 공개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고,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준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22년부터 개정된 모범규준을 ESG 평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 모범규준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대폭 반영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 요인 파악 및 대응을 강조하고, 친환경 공급망 구축 및 자원순환 경제 구현, 생태계 보전 활동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 모범규준은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면서 리더십에 기반한 전략적 사회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 및 성과'는 인권, 노동관행,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내용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속가능성 추구, 주주이익 보호, 최고경영자 승계 등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기업이 경영전략, 위험관리, 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ESG 모범규준 주요 개정사항

환경	사회	지배구조
· 전사적 관점에서의 환경경영 유도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 CDP, TCFD 등 국내외 환경관련 자율 공시체계 반영 · 기후변화, 순환경제, 생태계 보전 등 환경 이슈 반영	· 리더십 기반 전략적 사회책임경영 강조 - 기존 경영전략과 사회책임경영의 통합 · '운영 및 성과'는 사회적책임 주요 이슈 중심으로 재편 - 인권, 노동 관행, 공정운영 관행, 정보 보호, 지역사회 참여 등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지속가능성 추구, 주주이익 보호, 최고경영자 승계 등 · ESG 경영 관점 도입 - 경영전략, 위험 관리, 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

※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결과 및 특징



김민성 연구원

지난 11월 한국생산성본부는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기업의 상대적인 ESG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DJSI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지수이다. 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산업별 평균·최고 점수와 비교할 수도 있어 기업의 상대적인 ESG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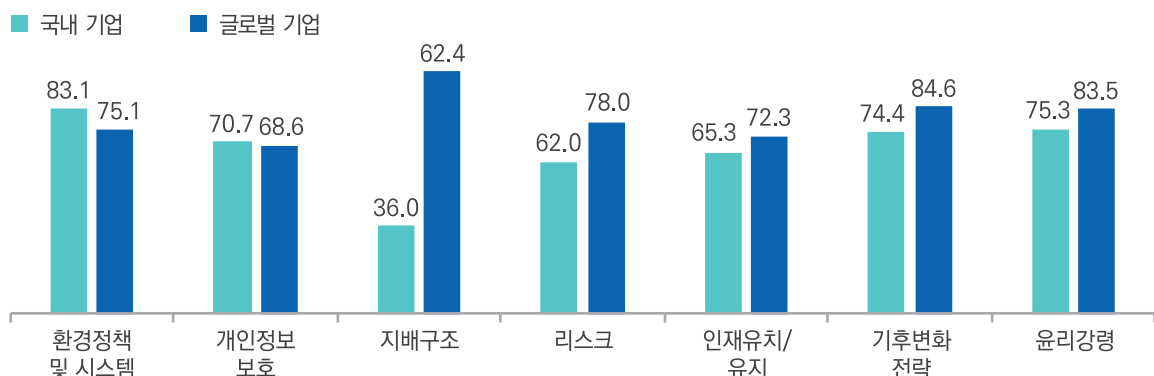
2021년 평가에서는 322개 기업이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되었고, 이 중 국내 기업은 21개였다. DJSI Asia Pacific 지수에는 153개 기업이 편입되었는데 국내 기업은 32개였다. DJSI Korea 지수에는 43개 국내 기업이 편입되었다.

2021년 평가 결과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ESG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의 평균 점수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76.5점), 국내 기업은 소폭 상승했다(70.9점). 글로벌 기업과 비교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환경정책 및 시스템(83.1점), 개인정보보호(70.7점)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항목에서는 글로벌 기업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에서 국내 기업들은 대외공개 정책 수립, 데이터 공시, 시스템 인증 등을 통해 성과 개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36.0), 리스크 관리(62.0), 인재 유치 및 유지(65.3), 기후변화 전략(74.4), 윤리강령(75.3) 등의 항목에서 글로벌 기업 대비 성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점수차가 각각 26.4점, 16.0점, 7.0점, 10.2점, 8.2점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지속가능경영 평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주요 항목 평가결과(2021)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ESG 통계 지표

2021년 12월 1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19	2020	'21.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녹색채권	21	31	94	105	122	122	131	135	144
사회적채권	178	471	599	632	663	689	710	747	765
지속가능채권	8	44	113	124	144	162	178	181	199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019	2020	'21.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녹색채권	21	30	103	113	129	128	139	141	148
사회적채권	246	736	979	1,018	1,079	1,125	1,166	1,214	1,247
지속가능채권	21	54	105	120	129	141	153	154	165

2. ESG 평가

서스틴베스트 2021년 하반기 상장기업 평가결과

부문	AA	A	BB	B	C	D	E	Total
기업수(개)	112	185	295	157	194	44	17	1004
비중(%)	11.2	18.4	29.4	15.6	19.3	4.4	1.7	100

3. 기타 통계

CDP* 주제별 공시 글로벌 기업 수

공시 주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후변화	4,482	4,958	5,532	5,815	6,251	6,937	8,361	9,526
수질관리	589	1,064	1,237	1,426	1,997	2,113	2,435	2,934
삼림	138	159	179	199	264	455	543	687
총 기업 수	4,539	5,001	5,624	5,863	6,316	7,016	8,446	9,617

* 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2021년 ESG 뉴스레터 주요 이슈 목록

5월

|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6월

| 주요국 기후변화 관련 규제·정책 동향
|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계획

7월

|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8월

|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 한국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9월

| ESG 경영전략
| Supply chain과 ESG

10월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11월

| COP26 개최 의의 및 주요 내용
|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 행동주의

12월

| ISSB 설립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ISSB 설립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김천구 연구위원

T. (02)6050-3140 | E. ck1009@korcham.net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민경희 연구위원

T. (02)6050-3137 | E. kmin@korcham.net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기준 개정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결과 및 특징

김민성 연구원

T. (02)6050-3139 | E. mskim62@korcham.net

ESG 통계 지표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kim@korcham.net